

# 무대조명 변화에 따른 분장의 시각적 효과

## VISUAL EFFECTS OF MAKE-UP ACCORDING TO CHANGES IN STAGE LIGHTING

류세자

서경대학교 연극영화학과

Seja RYU

Dept. of Play & Film, Seokyeong Univ.

### *Abstract*

Proper exposure of light and color by stage lighting which either accelerates or changes actor's sensation affects what a spectator sees or feels thus its visual effect is expected. In other words, lighting can distort or stress form of make-up. It provides visual satisfaction and interest through change of colors thus attracts attention of spectators. Also lighting is a visual part of make-up which could not be expressed in language and it heightens effect. Lighting either accelerates or changes actor's sensation and it enhances visual effect of make-up.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무대 위에서 행해지는 예술에 대해 Sheldon은 “무대예술이란 동작과 이야기만을 전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춤만을 보여주는 장면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진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sup>1)</sup> 즉 무대공연은 무대장치, 조명, 음향, 의상, 분장, 소품 등 공연요소들의 조화로운 안배 속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

1) Cheldon(1949), 「The Theatre : Three thous-and years ot Dramal」 N.Y.: Acting & stage, p.1.

이다.

무대 공연이 야외에서 있었을 때에는 자연스런 빛을 받고 있는 배우들에게 특별한 가치가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장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연이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점차적으로 조명이 발달하게 되자 배우들은 본래의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으며, 극중에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분장이 일반화 되었다.<sup>2)</sup> 즉 직사광선에 의하여 평면화된 인물에 보다 자연스런 상태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오늘날 무대 분장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조명은 시각적으로 공연의 흐름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공연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

질적인 면에 있어서 조명이 지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빛을 비추는 것, 즉 무대 위에 선 공연자의 얼굴과 행동을 관객이 볼 수 있게끔 가시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Georges Vitaly는 분장이란 “조명을 받으며 곧 무대에 오를 배우의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데 준비과정으로 소요되는 일체의 조작 및 절차”로 정의하였고 “분장은 그 과정에 있어서의 기법으로서보다는 의미를 운반하는 언어”로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고 하였다. 조명은 또한 그 색상과 음영의 강도를 통해 하루 중 어느 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며, 공연자들이 특정 분위기를 조

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관객이 무대 위의 어느 부분을 보아야 할지를 조명의 초점을 통해 이끌어 준다.<sup>3)</sup>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조명은 무대 위에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 특히 분장과는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4)</sup> 따라서 분장은 조명에 의해 그 표현방식을 달리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화가 극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대조명의 기원과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무대조명과 분장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무대공연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무대의 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무대 조명의 정의 및 기능

무대 조명은 빛을 연극이나 뮤지컬, 오페라, 무용 등 무대에서 행해지는 예술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또 다른 예술로 조명은 무대와 객석의 새로운 접목을 시도하려는 끊임없는 방법의 모색을 통해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大庭三郎는 무대조명을 일컬어 “무대 위에서의 온갖 빛의 효과를 말하며 이런 의미에서 전기공학·조명공학과 미학(감각·예

2) 한미영(2002), “무대조명이 무용공연활동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7-28.

3) 에드윈 윌슨 역, 「연극의 이해」, 예니, pp.181-195.

4) 이정은(1993), “무용 조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26.

술)의 복합적인 기능이다.<sup>5)</sup> 라고 정의 하였다.

빛의 효과인 무대조명이 현대에 있어서 무대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기까지는 무대조명의 역사에 많은 변천이 있었고 그 변천을 통해 조명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예술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예술적인 차원으로 탈바꿈 하였다.

한국에 있어서 무대조명이 처음 도입된 것은 1898년 한성 전기회사 설립 이후의 원각사에서의 공연으로 추정된다.<sup>6)</sup> 그 후 많은 공연 무대의 설립으로 무대조명은 발전을 거듭하게 되어 단순히 밝게 비춘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작가의 의도나 감정, 분위기를 조정하는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목적, 여건, 환경에 따른 다양한 기준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공연에 있어 무대전체에 미치는 시각적인 효과에 기여하는 조명의 비중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무대조명의 기능은 공연자에게 주어진 환경에 처하게 된 동기를 설정해 주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장면의 전환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있다. 동시에 조명은 작가의 의도와 감정, 전체적인 의미를 관객에게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가시도를 높이고 강조하는데 있다.

조명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조명은 돋보이게 하거나 약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특정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하거나 다른 것들을 약화시킴으로써 특정한 지역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다.

둘째, 물체의 모양과 형태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피사체의 어느 특별한 모양새를 선택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으로 장면의 무드, 분위기, 시간 등을 나타내어 피사체의 환경에 성격을 부여한다. 조명의 범위와 각도를 잘 선택해서 한 화면 안에서 인간의 감정반응을 암시할 수 있다. 긴 그림자는 아침이나 저녁의 햇빛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연상 작용을 바탕으로 두면 평화로움, 슬픔, 휴식 등을 암시할 수 있다. 또한 강한 조명은 뜨거운 한낮의 태양도 되지만, 한 화면에서 동적이고 활기참을 연상케 할 수도 있고 잔인할 정도로 강한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

넷째, 위치, 원근감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조명은 피사체뿐만 아니라 피사체의 주변도 드러나게 하므로 필연적으로 그 크기, 거리감, 부피, 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같은 크기의 방이라도 밝은 벽에 둘러싸인 방이 어두운 벽에 둘러싸인 방보다 더 크고 넓게 보이게 한다.

다섯째, 구도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화면 전체에서 명암의 톤을 적절히 함으로써 구도상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창문의 블라인드의 그림자가 벽면에 비치면 주사된 그림자나 모양은 구도 상에 영향을 미치며 조명은 화면 속에 선과 톤, 그리고 거리감 등을 느끼게 된다.

5) 大庭三郎(1958), 「舞臺照明의 實際」, 동경: 才一社, p.18

6) 이두현(1966), 한국 신극사 연구 서울:서울대 출판부 pp19-37

여섯째, 시각적 연속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으로 두 대 이상의 카메라를 사용하든가,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었을 때 한 카메라의 위치에서 보는 화면의 톤의 균형이나 배경의 고아도가 다른 카메라 위치에서 보는 것과 너무 다를 때 영상의 연속성이 깨진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낮처럼 보이는데 다른 쪽에서는 야경과 같이 보일 수 있으므로 시각적 연속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명의 톤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밝기와 대조, 비례 한계에 관한 기술적 기능으로 촬영에 쓰인 자재나 방식, 소도구류 등이 요구하는 밝기와 대조, 비례 한계에 관한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조명을 조정함으로써 사용하고 있는 촬영 시스템의 한계성에 맞는 조명을 함으로써 최대의 표현력을 구사할 수 있다.

대조가 너무 심할 때는 어두운 부분을 더 강조하고 밝은 부분은 조명을 약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화면에서 부선명도를 주어 더 나은 화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2. 무대 조명의 특성

조명은 빛을 취급하는 인공조명으로서 사물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지만 무대 조명은 빛의 명암, 빛의 그림자, 빛의 변화, 색광에 의한 빛의 배치를 기초를 해서 무대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무대조명은 빛의 의한 무대효과로서 다음 네 가지의 특성이 있다.

첫째, 시각(視覺)작용으로 관객이 극장에 가

는 목적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위해서이다. 극장은 이 두 가지를 관객에게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만일 이들이 관객에게 모든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할 것은 당연하다. 먼저 관객에게 시각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빛의 양(量), 즉 충분한 밝기를 주어야 하고, 빛의 질(質), 즉 적당한 빛의 분포와 색광(色光)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사실(寫實)작용으로 무대를 현실처럼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은 연출의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 ‘현실처럼’이란 말의 참 뜻을 충분히 잡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사실적인 연출이라 할지라도 무대에 사실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불편을 불러일으키는 수가 많다. 여기에서 사실이란 연극에 필요한 범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머리에 새겨두어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사실을 시화(詩化)하는 데에 있다. 이른바 현실처럼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관객에게 현실로서 받아들여지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실처럼’이라는 뜻을 잘 검토하고 또 충분히 그 참 뜻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적 효과를 내는 데에는 매우 중요하다.

조명이 사실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것은 시간, 날씨, 기타 사물의 묘사이다. 시간은 크게 나누면 계절과 하루의 시간경과가 되고 날씨의 맑음, 흐림, 비 등이 된다. 또 투영기(投影器)에 의해서 태양, 달, 별, 눈, 비, 우박 등의 자연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 밖에 새, 나비, 물고기가 날고 움직이는 모양이나 불꽃, 연기, 꽃불 등의 묘사도 할 수 있

고, 사실의 무대에 현실처럼 효과를 창조해 내게 된다.

셋째, 심미(審美)작용으로 인간은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낀다. 왜 아름답다고 느껴지는가 하면, 거기에는 빛이 있기 때문이다. 새벽의 붉은 하늘, 한낮의 강력한 햇살, 저녁 노을, 혹은 달빛 등 그것들이 모두 그림이 되고 시(詩)가 되는 것도 빛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무대장치나 의상이 있어도 조명이 아니면 최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얼핏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들이라 해도 빛을 비치는 방식에 따라서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데 매우 큰 힘을 가진다.

넷째, 표현(表現)작용으로 연극은 심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감각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극이나, 무용이 조명과 불과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조명이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심미적인 표현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조명의 요소 중에서도 앞에서 말한 시각(視覺)이나, 사실적인 작용은 감각적인 요소로 볼 수 있으나 표현 작용은 연출해 보이려고 하는 것 중에서도 주로 심미적 방법을 표현하는 것인 만큼 조명의 요소 중에서도 중요시해야 할 작용이다.

빛을 여러 가지 상태로 변화시킴으로써 혹은 색체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조명이 관객에게 주는 심미적 표현은 매우 크고도 다채롭다고 할 수 있다.

### 3. 무대 분장의 역할 및 기능

관객은 분장을 연기자를 등장인물로 변신시키는 과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지한다. 극을 관람할 때 단순히 배우의 얼굴을 보고 즐거워하지만, 더 나아가서 극중 인물의 심리를 터치와 색상을 이용해 그리고 극중 내용의 암시 등 좀 더 섬세한 부분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분장은 연기자가 한 인물을 창조하는 일을 돕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며, 얼굴만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신체의 다른 부분이나 신체의 전 부위를 의미할 수 있다. 분장은 연기자의 사회적 신분, 시대, 민족, 연령, 성격, 건강 등을 시각적으로 표출해 냄으로써 배우가 창출해 내려는 극중 인물의 외적인 면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sup>7)</sup>

더글라스 러셀은 무대 의상에 대해 언급하기를 “무대 의상은 연기하는 이의 연기를 도와주는 환경으로서 공연자가 걸치는 모든 것을 말하며, 이것은 공연 전체의 통일을 위해 마련되어지며 겹옷, 속옷, 신발, 머리장식, 장신구, 가면, 분장과 같은 배우의 몸에 걸친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sup>8)</sup>

그러나 의상과 분장은 그 기능과 수행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오늘날 무대공연에서는 머리장식은 또 다른 영역으로 세분화 가고 있는 추세이다. 분장을 의상의 범주

7) 강대영(1999), 「한국분장예술」, 지인당, pp.3-8.

8) 세뮤엘 쉘던, 「무대예술론」, 현대미학사, p.60.

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전문화 세분화 되어 가는 공연예술에 역행하는 발상이며, 이는 분장을 무대공연에 있어서 중요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라 여겨진다.

이필동은 원칙적으로 분장이라고 하면 연기에 있어서의 진실성, 영원성, 순수성, 예술성, 신비성 등을 추구하는 정신분장과 대사의 높고 낮음, 길고 짧음, 어투의 시대성(고대, 현대) 등을 나타내는 대사분장, 그리고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의상 일체까지를 포함하는 신체분장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지만 실제 현대에 와서는 신체분장, 그 중에서도 의상을 별개의 분야가 되고 신체 조건만으로 맡은 바 역할의 인물로 분(扮)하기 위한 안면 분장만을 분장이라고 한다.<sup>9)</sup> 라고 하였다.

연극에서 배우는 극적행동과 극작가의 세계관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중심매체이자 연극의 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심매체인 배우가 창조해 내는 인물은 대사나 행동 등을 통해 나타나지만 외형상 무대분장에 의해 성격이 나타난다.<sup>10)</sup>

브록케트는 「연극개론」에서 ‘배우의 심리적이며 정서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장은 배우가 무대의 오르기 바로 직전에 반듯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해야 할 준비과정이다. 배우는 분장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공연의 완벽한 준비과정을 마쳤다 할 수

있다’<sup>11)</sup>라고 했다.

최종적으로 분장은 배우에게 무대에 오르기 전의 마지막 마무리인 것이다. 배우는 그 동안의 자신 같고 닮은 기량과 능력에 상관없는 대사나 몸의 동작으로 전달할 수 없는 부분 즉, 분장을 분장사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배우가 표출하려는 등장인물을 배우 자신 만큼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분장사의 기술에 의지해야만 되는 배우는 예술적인 면에서 불구자나 다를 없다.

대사나 몸의 동작과 마찬가지로 분장은 배우가 보여주는 기교 중의 한 가지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기교가 배우의 것이든 혹은 분장사의 것이든 아니면 두 사람의 합작이든 간에 분장의 근본은 연극에 생명을 부여하는 배우 자신에 달려 있다. 분장을 소홀히 하는 배우는 그 자신 마음속에 신중하게 그리고 있는 등장인물의 개념이나 정확성을 시각적으로 표출하는데 실패할 위험이 있다.<sup>12)</sup> 배우는 그 자신의 모든 재능을 사용해야 하지만 분장이 안 될 때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배우와 분장사의 긴밀한 타협과 토론이 대두되며, 원활하지 못한 타협과 토론이 유지되지 못할 때 배우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며, 배우가 행하는 연기의 가능한 효과를 위축시키게 되고 이런 점이 연기의

9) 한옥근(1998), 「연극의 이해」, 국학 자료원, p.58.

10) 황성원(2001), “햄릿 공연을 위한 무대의상 디자인” 동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1.

11) 질 지라르 저, 윤학노(1998)역, 「연극이란 무엇인가」, p.68.

12) 공연예술총서(1981), 「분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11.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배우에게 분장은 등장인물로의 점진적인 동화를 요구한다. 그것은 삼투현상을 통해, 말하자면 등장인물의 점층적이 떠오름에 참여할 수 있다. 변화되고 강조된 신체상의 특징은 예정된 심리적인 반향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등장인물을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거나, 구성의 역할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드러날 수도 있다.

#### 4. 무대 조명의 색과 이미지

조명은 분장의 형태를 왜곡 강조시킬 수 있으며, 색채의 변화를 통해 시각적인 만족과 흥미를 제공하여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다. 또한 조명은 분장이 언어로 표현 못한 시각적이 부분으로서 효과를 높이기 하며 인간의 지각을 촉진하거나 변화를 주는 요소로서 분장의 시각적인 효과 높인다.

무대조명이 분장에 미치는 시각적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광원에 따른 분장 색의 변화

무대조명의 색은 가산혼합의 원리에 따르고 있으며 이 원리에 의상 조명은 분장을 창조하거나 변화 시킨다. 이것은 전구 자체의 성질 즉 광원의 연색성과 칼라필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혼합되는데, 동일한 색이라도 조명하는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연색성은 분장에 영향을 미쳐 분위기를 조성한다.

<표 1> 광원에 따른 분장색의 변화

광원	분장색	변화된 분장의 색
백열전등	적색 등색 황색 녹색 청색 자색	황색이 가미된 적색 선명한 등색 적색이 가미된 황색 어두운 황록색 어두운 청색 어두운 자색
형광등	적색 황색 녹색 자색	주황색→갈색 레몬황색→녹색이 가미된 황색 청녹색→선명한 청색 적색이 적은 청적색
수은등	적색 황색 녹색 청색	어두운 적색 담등색 담녹색 담청색

##### 조명 상태에 의한 분장의 효과

색광을 사용하여 색상을 만들 수 있는 색필터에 의한 색상의 변화는 고유 분장색이 갖고 있는 상징적 효과를 변화시킨다.

<표 2> 조명 상태에 의한 분장의 효과

조명상태	분장색
어두운 조명	분장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더욱 강조해야 함
밝은 조명	어떠한 분장도 무관
동색조명	분장의 색상이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부각됨
유사색 조명	피부 질감의 표현 효과 더욱 부각
보색조명	분장의 색을 회색빛으로 보이게 함

### 빛의 각도에 의한 윤곽 효과

강한 빛은 형태의 미와 질감을 음영에 의해 강조시키는데 조명에 의한 음영의 효과는 형태를 왜곡, 강조하며 색상, 형태, 질감의 변화를 가져온다.

<표 3> 빛의 각도에 의한 윤곽 효과

빛의 각도	빛의 성질	얼굴 윤곽	시각적 효과
낮은 각도	튀어나옴	강조됨	황홀한 느낌, 거친 느낌
높은 각도 수직각도	대부분 흡수	흐릿하게 표현됨	부드러운 느낌

### 빛의 양과 분장의 심리적 효과

무대에서의 밝음과 조절 즉 조도는 관객의 시각에 영향을 미쳐 장시간의 주의집중과 안정감 등의 심리적 요인을 좌우한다.

<표 4> 빛의 양과 분장의 심리적 효과

조도(LX)	정신 활동	심리적 효과
0	감성적 작용 우세	불안, 죽음, 존재부정
40이하 50이하		
100전후 200전후	이성적 작용 우세	정적인 상태, 철학적 사색
500전후		중압감, 폐쇄감 감소 타인과의 융합도 고조 외적 유대감 상승
1000전후		장시간 노출, 심리적 불안감 고조, 위축감

## 5. 무대 조명과 분장

무대 위에서 조명은 무대를 밝혀주고, 극의 환경을 조성하며, 극을 이끌어가는 배우들을

형상화 한다. 조명디자이너는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빛의 색, 방향, 형태 등을 기억하며 더불어 심리적인 것들 또한 더불어 표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명 디자이너는 조명기와 디머, 그리고 색을 사용한다.

조명디자이너가 대본을 분석하고 무대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보고 조명기의 위치들을 생각하듯이 분장 디자이너 또한 각 배역의 성격을 분석하고 배우의 얼굴의 형태와 피부색 등을 분석하여 배우가 좀 더 그 배역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분장 디자이너의 역할이자 능력인 것이다.

조명은 강도나, 색, 방향, 형태 등의 방법으로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공연자에게 표현 조절될 수 있다. 특히 조명의 색과 방향은 의상, 분장, 무대장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어떠한 조명의 색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분장, 의상, 무대의 고유색이 다른 색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며, 어떠한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는가에 따라 배우의 얼굴 형태와 또는 의상과 무대가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명의 방향은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전광, 후광, 측광, 탑 조명, 그리고 각광이 있다. 먼저 전광은 피사체의 앞쪽에서 비추는 조명을 말한다. 전광은 배우의 연기를 볼 수 있게 해주며, 불필요한 그림자를 없애준다. 더불어 빛의 강도를 낮추어 극의 분위기와 공간의 깊이 등은 살려주며 전반적이 무대나 배우들을 비추어 준다면 입체감과 공간감을 없애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후광은 피사체의 뒤쪽에서 비추는 조명으로



물체의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한다. 이는 특별한 깊이를 만들기도 하며, 신비함, 환상적인 느낌 등을 만들어 낸다.

측광은 피사체와 관객의 눈을 잇는 선에 90도를 이루는 방향에서 비치는 조명을 말한다. 피사체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조명으로 전광이나 역광보다 무대를 넓게 비추기 때문에 무대의 깊이를 살려주기도 하며 극적이 효과를 낼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탑 조명은 피사체의 바로 위에서 비추는 빛을 말한다. 이 조명은 선택적이며 드라마틱함을 나타내는 것에 사용하는 것은 좋으나 얼굴에 그림자가 저서 관객들이 배우의 얼굴 또는 표정을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각광은 피사체의 발밑에서 위로 비추는 빛을 말한다. 이 조명은 자연스럽지 못함, 또는 비현실적인 것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빛은 각도에 따라서도 많은 것들을 표현한다.

무대조명의 색은 가법혼색의 원리를 이용한다. 빛을 가하여 색을 혼합할 때, 혼합한 색이 원래의 색보다 밝아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R(빨강), G(녹색), B(파랑)의 2차색을 이용하여 노랑, 마젠타, 시안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삼원색을 혼합하면 백색이 된다.

즉, 하얀색 표면위에 violet blue와 green light를 주면 표면의 색은 cyan(엷은 파랑색)으로 바뀌며, orange red와 green light를 주면 표면의 색은 yellow로 바뀌고, orange red와 violet blue 주면 magenta(엷은 분홍색)으로 보여 진다. 하얀색 표면위에 orange red, violet blue, green light를 동시에 비추면 그대로 하얀색이 되고, orange red와

cyan light를 또는 violet blue와 yellow light를 마지막으로 주고 green과 magenta light를 사용하면 하얀색 표면을 볼 수 있다.

또한 물체의 표면에 같은 색상의 조명을 비추면 더욱 선명한 색상을 얻을 수 있으며, 반대로 다른 색의 조명을 쓰면 전혀 다른 색상이 나올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붉은 색 톤의 분장위에 green light의 조명은 배우의 얼굴을 노란색 톤으로 보이게 하는 원리이다. 특히 보색관계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녹색 분장에 빨강색 조명은 부담스러운 색이 연출되지만, 실전에서는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무대 위에서 분장은 특히 배우의 명암 처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는 조명의 각도에 따라 배우의 얼굴 윤곽이 달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페라에서 많이 쓰는 Follow Spot은 모든 색을 흡수하는 Day light 즉 한 낮의 조명으로 하이라이트가 너무 돋보여 보일 수 있으며, 사이드 등 각광은 배우의 얼굴을 길게 보이게 한다. 전면 45도의 조명은 배우의 얼굴을 평면적으로 보이게 하므로, 분장에 있어 하이라이트와 쉐딩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특히 무용 공연의 경우 각광에서 비우는 조명이 많기 때문에 쉐딩 선들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

### III. 결론 및 제언

인간의 지각을 촉진하거나 변화를 주는 조명의 적당한 빛의 노출과 색채는 관객이 무

엇을 어떻게 보며 느끼는지에 영향을 미치며 시각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특히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배우는 자신의 몸 전체가 표현수단인 만큼 분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조명의 발달과 함께 조명의 영향에 따른 분장의 색이나 이미지의 표현방법 또한 달라져야 하며 상호간의 조화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조명의 색과 방향은 의상, 분장, 무대장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어떠한 조명의 색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분장, 의상, 무대의 고유색이 다른 색으로 바뀔 수 있으며, 빛의 조사방향에 따라 배우의 얼굴 형태와 또는 의상과 무대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무대조명의 색은 가법혼색의 원리에 따라 색으로 표현되며 빨강, 녹색, 파랑의 2차색을 이용하여 노랑, 마젠타, 시안 등을 얻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무대 위에서 분장은 조명의 위치와 세기에 따른 배우의 명암 처리에 신경을 써야하며 분장의 기법 또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면 충분한 분장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상의 연구에서 조명의 역할과 특성 및 색과 이미지에 대한 이론적 실질적 고찰을 통하여 분장 또한 조명을 바탕으로 충분히 계산된 연출을 시도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한 분장기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Cheldon(1949), 「The Theatre : Three thous-and years ot Dramal」 N.Y.: *Acting & stage*, p.1
2. 한미영(2002), “무대조명이 무용공연활동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7-28
3. 이정은(1993), “무용 조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26
4. 에드윈 월슨, 「연극의 이해」, 예니, p.181-195
5. 大庭三郎(1958), 「舞臺照明의 實際」, 동경: 才一社, p.18
6. 이두현(1966), 한국 신극사 연구 서울: 서울대 출판부 p.19-37
7. 강대영(1999), 「한국분장예술」, 지인당, p.3-8
8. 세뮤엘 셸던, 「무대예술론」, 현대미학사, p.60
9. 한옥근(1998), 「연극의 이해」, 국학 자료원, p.58
10. 황성원(2001), “햄릿 공연을 위한 무대의상 디자인” 동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1
11. 질 지라르 저, 윤학노(1998)역, 「연극이란 무엇인가」, p.68
12. 공연예술총서(1981), 「분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11